

다산포럼



김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 끝나고, 지리산 영신봉에서 다시 동남쪽으로 김해에 이르는 산맥을 우리는 낙남정맥(洛南正脈)이라고 부른다. 이 산줄기가 함안과 마산·창원의 경계를 지날 때 솟아오른 봉우리가 여항산(770m)과 서북산(738.5m)이다. 이 산들이 바로 6·25 전쟁의 운명을 결정했던 마산 방어 전투의 현장이었다. 1950년 8월 초부터 진주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북한군 6사단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군과 국군의 필사적인 전투가 이곳에서 전개되었다.

서북산 남쪽 진동지구에서 해병대 김성은 부대, 그리고 서북산 북쪽 함안에서 미군 25사단이 분투했다. 이후 9월 중순까지 6주간 진행된 서북산과 여항산의 고지전에서 주인이 19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니 그 치열함을 상상할 만하다. 북한의 중군작가로 와 있던 소설가 김사량이 서북산 고지에서 쓴 중군기 '바다가 보인다'가 9월 17일 작성되었으니, 그날이 아마 마지막으로 주인이 바뀐 날이었을 것이다. 그가 쓴 "흐늘어지게 아름다운 바다"는 지금도 그대로이다.

다시 위령비를 세우며

그로부터 37년이 흐른 1988년 초, 여항산 입구에 호국영령을 기역하고 군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6·25 격전 함안 민안(民安)비'가 세워졌다. 뒤이어 1992년 해병대 사령부는 '진동리 지구 전첩비'를 세웠고, 1995년 육군 39사단은 서북산 전투에서 산화한 로버트 티몬스 대위와 유엔군 병사들을 기리는 전첩비를 세웠다. 이 전투의 희생자는 미군 700여 명과 국군 1000명을 포함하여 총 1700명,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티몬스 대위의 아들이자 주한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에서 활동한 리차드 티몬스 중장이 함께 하였다. 티몬스 대위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11월,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전쟁의 희생자들은 이들만이 아니다. 전투원 못지않게 민간인들의 희생도 무척 컸다.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비는 언제 세워졌을까? 이 지역에서 민간인 위령비의 출발은 2018년, 그러니까 민안비가 세워진 지 30년 후에 건립된 '백운고비'(白雲孤飛)비다. 그대로 옮기면 '흰 구름은 외롭게 날고'이지만, 실은 당나라 고사를 빌어와 멀리 떠나는 자식이 어버이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 비는 함안유족회가 민간인 희생자 700명을 새긴 각명비와 함께 있다. 이 비 바로 앞으로 함안천이 흐르고, 서북산과 여항산이 멀리 가까이 보인다.

이 평화로운 장소가 대전후 직전에 발생한 예방학살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데, 하물며 '백운고비'라는 표현이 위령비나 추모비라는 이름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올해 3월 진주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가 세워지고, 11월에는 진전 곡안리 이씨 사당에 미군에 의한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진 데 이어 마산 가포해변에 장원 위령탑이 세워졌다. 이 탑은 바로 유명한 가곡 '가고파'에서 표현된 "파랑고 잔잔한 고향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위령탑 오른쪽 위로 마창대교가 지나는데,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갯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듯 하다. 마산형무소 재소자나 보도연맹원 700명 이상이 수장되었다고 전해지는 그 바다가 시인이나 소설가가 말했던 그 바다였을까?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은 유족들에게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고통스런 과거의 기억을 재현한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역사와의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이다. 근래에 열리는 추모제에서 빠짐없이 낭독되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글'은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아버지에게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 시절의 서러움이 겹쳐지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기도 한다.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위령탑은 어떤 의미일까? 위령탑 제막식의 마지막 순서는 북춤, 전쟁 희생자 모두를 안식의 세계로 안내하는 촛사위와 함께 낯선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동동 북소리가 제공해주는 듯했다. 탑을 둘러서 참석자 모두가 추모 공동체가 되었다.

청춘 특특



김유나  
동신대 방사선학과 1년

고사성어 '우공이산'(愚公移山: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은 남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때는 그 뜻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의 마지막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연히 '우공이산'이라는 단어를 다시 듣게 됐고, 이번에는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높은 교육열의 이유는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다.

나 역시 그랬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 좋은 직장을 갖는 게 고등학교 때 나의 꿈이자 목표였다.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 나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우공(愚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공부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뜻 같지 않았다.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결과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느 순간 현실의 타협점을 찾게 됐다. 자연스럽게 노력이 줄어들었다. '우공이산'의 뜻을 공감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됐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분야는 생명과학과 농업이었지만, 어느새 나는 현실의 타협점을 찾아 그동안 나의 진로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사선학과를 선택했다. 수시 원서를 쓰면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한 타협점이 부모님이 추천한 방사선학과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방사선학과를 추천한 이유 여러 가지를 꼽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졸업 이후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이후가 문제였다.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보낸 3월이 지나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그렇다고 학교를 불성실하게 다닌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고, 그 결과 1학기에 과 수석을 하게 됐다. 하지만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는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다시 찾아야 하나?' 의문에 의문이 쌓이면

서 자퇴와 재수를 고민하기도 했다.

그런데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를 우연히 다시 들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 답을 찾았다. 그 답은 '내가 방사선학을 좋아하게 됐고, 이 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이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실패에서 오는 좌절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부모님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나를 묵묵히 지원해 주었다.

지금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있고, '나도 우공처럼 언젠가 산을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앞으로 더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어 보자. 꾸준히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일을 매우 좋아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어 보자. 그렇다고 무조건 노력하자는 말이 아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소소한 일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 보자. 하지만 쉬지 않고 기울어지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해 보자.

기고

창작 수필의 역사와 '수필의 날'

이 그것을 말한다. '에세이'라는 말은 '개벽' 21호(1921)에서 처음 등장했다. 춘원 이광수는 '에세이'란 말을 정의하여 '문학적 논문'이란 말로 대체하였다. 칼 라일, 에머슨 같은 이는 영문학에 유명한 논문 작가(Essayist)라고 했다. 그는 또 논문이란 말이 적당치 아니하다며 영어로 'Essay'라 지칭하였다. 우리가 친숙하게 부르는 '수필'이란 장르 이름도 '영대'(1924)에서야 겨우 확정되었다. 그 전에는 수상, 수감, 단상(斷腸) 등으로 불렸다. 나도향의 '그림달'도 수필이 아니라 '단상'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생각할 일이다.

창작이란 무엇인가? 제1 창조자는 조물주이고, 제2 창조자는 작가이다. 조물주는 만물-문학 용어로는 존재의 총계-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exist, being) 하는 창조를 한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다. 사람, 동물, 새, 풀고기, 풀 등 이 세상천지의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이다. 제2 창조자인 작가가 만드는 창조물은 창작품이다. 이것은 독자가 읽었을 때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형상(形象)이 떠오를 뿐이다.

창작 문학의 기본 작업은 '이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저것'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의 '이것'이라는 소재를 '다른 것'으로 보는 창작 작가적 인식 능력과 상상력을 갖추어야 가능한 일이다. 작가를 왜 작가가 하는가? 평범

한 일상사에서 보통 사람들은 언지 못하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문기 전에 현대문학을 설명해야 하겠다. 현대 문학이란 우리나라 문학예술 전반—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및 대중예술—은 갑오경장(1894)을 기점으로 고전문학적 방법에서 서구 현대 문예사조에 의한 창조적 예술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를 현대음악, 현대 미술, 현대무용이라 부르고, 문학도 '현대문학'이라 부른다.

현대문학의 '창작 수필'로 태어난 '가을'은 탄생 100년이 넘도록 생일날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수필의 날은 여태까지 없었던 말인가? 아니다. 벌써 스무 번이 넘게 생일을 쇠기는 쇠었다. 세 번이나 날짜를 바꿔 가며... 그러나 어느 한 날짜도 현대문학의 수필의 날로는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현대문학의 창작 수필로 태어난 '가을'은 태어나자마자 잊혀 버린 이름으로 영원히 지하에 묻힐 뻔했다.

다행히 2007년에 이관희의 '창작 문예 수필 이론서'에서 발굴되고 평가되어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에서 100주년 기념행사를 5년 전에 광화문 서울 신문사 옆 뉴극제호텔에서 가진 바 있다. 또한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에서는 '가을'이 발표된 날을 기하여 지난달 16일 광주 시립 무등도서관 대강당에서 '수필의 날'을 선언했다. 앞으로 창작 수필이 우리 일상과 문학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社說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이 적지다

광주·전남 지역에 첨단산업을 선도할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대학들과 공동으로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등을 다지고 있다.

반도체 특화 단지는 10년간 관련 인력 15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5년간 34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과 맞물려 있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퉀 특화 단지 지정에 나선 배경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특화 단지 정책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전략했다. 정부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부문까지 광주·전남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 이어 이번에도 상생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치권과 대학도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방위 확산 조류독감, 농장 간 전파 막아야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전남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속도가 심심치 않다. 올 가을 들어 첫 발생 3주 만에 다섯 개 시군, 아홉 개 농장에서 확진되며 전방위로 번지는 양상이다. 살처분된 닭·오리만 15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무안군 중오리 농장과 함평군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당국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반경 1km 이내 가금류 52만 1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로써 올 가을 이후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사례는 나주 다섯 곳, 장흥·고흥·무안·함평 각 한 곳 등 모두 아홉 곳으로 늘었다. 이는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함평군의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남도는 해당 산란계 농장과 반경 1km 가금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12만 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AI로 살처분된 닭

·오리만 147만 마리에 이른다.

올해는 AI 바이러스가 유난히 강하고 전파 속도도 빠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욱이 이달 들어 기온이 영하권으로 푹 떨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 온도가 내려가면 AI 바이러스는 활발해지는 반면, 소독약이 어는 등 방역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철새들이 예년보다 훨씬 빨리, 훨씬 많이 찾아온 데다 폐사체 등의 감염원이 두 배 이상 높은 점도 걱정거리다.

전남에서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나주와 영암에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방역 당국은 이들 시군에서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방역 및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농가로 확산하는 수평 전파의 차단이다.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신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찰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며 이태원 참사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희망의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 대표팀에 속한 H조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등 각 대륙의 강팀들이 버티고 있어서

1차전에서 무승부로 선했던 대표팀이 가나와의 2차전에서 석패하면서 16강 진출의 꿈은 멀어지나 싶었다. 하지만 우승 후보로 꼽혔던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 내면서 16강에 진출, 믿기 힘든 신호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

16강 진출의 쾌거는 대표팀 선수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도 예선전의 투지가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다. '마스크 투혼'의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모든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신화를 소환하고 있다. 한일 월드컵 당시만 해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1승 정도는 거두지 않겠느냐는 소박한 기대감 정도가 있었다. 16강 진출은 그야말로 대성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4강 진출이었다. 대표팀 선수들의 빛나는 투혼과 국

민적 응원이 결집되어 신화를 만든 것이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그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6일 새벽 8강 진출을 놓고 치러지는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일전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의 현실도 있다. 바로 정치판이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민생 경제 침체의 그늘 속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힘을 모아야 시원치 않을 판에 협치는 실종되고 저주만 난무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구속'의 목소리가, 야권에서는 '윤석열 퇴진'의 구호만 저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조사도 점

차 정쟁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2일) 처리도 어렵다. 정쟁의 끝이 보이지 않으면서 민생은 명물 들어 가고 있다.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비와 공격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핵심이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쟁은 결국 공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정치권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